



1일 오전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관람객들이 'XTRA'를 감상하고 있다.



1일 오전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장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관계자들이 방역로봇을 점검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기술+감성' 미래 디자인 새 패러다임 이끈다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디자인 기술과 감성의 의미있는 콜라보.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1일 개막식을 갖고 61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개막식은 1일 오후 7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장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팬데믹 시대를 위로하는 디자인 기술과 감성의 의미있는 콜라보를 선포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변화의 물결 속에 미래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주제인 디-레볼루션은 디자인(Design)과 레볼루션(Revolution)의 합성어로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이끈다는 뜻을 담았다. 행사는 본전시와 특별전, 기념전, 국제컨퍼런스, 온·오프라인 마켓, 디자인체험 및 이벤트 등으로 꾸며졌다. 전시에는 폴란드, 이탈리아 등 세계 50여 개 국가, 421명의 작가와 국내외 기업이 참여해 총 1,039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주제관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포문을 여는 주제관은 정보(Data), 차원(Dimension), 일상(Day), 행위(Doing), 표현(Description) 등 5개의 키워드로 전개된다. 맨 처음 관람객을 맞는 건 디자인 스튜디오 완다바르셀로나와 디뮤지엄이 협업한 'From Color to Eternity'다. 흐드러지게 핀 등나무 꽃을 상징하는 4,000여 개의 종이 꽃송이들이 꿈 속을 거니는 듯한 신비로운 공간을 연출한다. 자연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공감각적으로 표현했다.

5월 광주를 상징하는 이팝나무의 향과 빛을 결합시켜 광주의 정체성을 구현해 낸 '투힐미' 공간은 잠시 현실을 내려놓고 후각과 시각만을 통해 치유받는 색다른 체험을 안긴다. 피아투룸 보타니쿰(Theatrum Botanicum)의 전시 컨셉 '식물극장'은 식물과 정원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로 미래 정원의 다양한 양상을 구현한다. BTS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김준홍 감독의 작품 '엑스트라'는 메타버스와 사이버펑크한 이미지에 반영해 관람객으로 하여금 K-POP의 중심에서 있는 환상을 준

다. 엑스트라 작품 속에서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다. 이밖에 이이남의 'DNA 산수', 박정선의 '바람 부는 대나무숲' 등 미디어아트 작품과 멘디니의 '푸르스트 체어' 등 다양한 의자 작품도 관람객의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국제관

2관 국제관의 콘셉트는 덩 레볼루션이다. 덩(DUB)은 독창성의 새로운 개념으로 공감과 연대에 기반해 외국의 것을 현재의 것과 재조합해 창조하는 예술적 행위이자 새로운 아트 트렌드다. 원형으로 이루어진 컨템포러리 공간에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을 듣고 메모할 수 있는 곳이다.

◇AI관

3관 AI관은 인공지능의 패턴과 유사한 DNA 염기서열이 무한히 확장되는 비하이브(Be-Hive) 구조의 DNA X를 콘셉트로 DNA X Intro, DNA X 天, DNA X 地, DNA X 人으로 기획됐다. 디지털 혁명 속에서 AI를 매개로 한 인간과 기술의 콜라베이션과 이를 통해만 들어지는 속성적, 물리적 확장성을 전시

50개국 421여 작가·기업 참여...1천여 작품 선보여
팬데믹 시대 위로하는 다채로운 국제행사도 마련
특별전·기념전·국제컨퍼런스 등 시너지효과 기대

공간 속에 풀어낸다. 빛과 혁명으로 대치되는 광주의 정신을 AI의 비전 위에서 제시한다.

◇체험관

체험관에서는 이번 행사의 주제인 '혁명, 디레볼루션'을 커다란 변화로 인식한다.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변화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이 궁극적으로 인류의 진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일상'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류의 모습을, '공존'으로 변화에도 공동된 의미를 추구하며 공감의 세계를 넓혀가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해 냈다.

또 새로운 변화에 새로운 해석과 긍정적 판단, 유연한 설득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는 사회의 모습은 '노력'으로 보여준다. 마지막 '가치'라는 주제로 질서의 테두리를 넘어 계층 이동과 소셜 모빌리티를 구현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렸으며, 각 주

제는 4개의 존에서 만날 수 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예술의 정당 홀로그램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지역산업관

지역산업관은 디자인을 통한 광주의 혁명이란 주제에 맞춰 총 3개의 세부 섹션으로 구성됐다. 광주뷰티(화장품)업체 공동 브랜드 개발을 선보이는 '광주뷰티·코스메틱 비즈니스 존'과 지역 주력산업 양산 제품과 중소기업 창업지원 우수상품을 홍보하는 '광주지역 대표 비즈니스존', 그리고 광주의 우수문화산업을 소개하고 미래 디자인의 비전을 제시하는 '광주 문화산업존'이다.

1인용 미니화로, 감성화병, 벽걸이형 공기정정기, 탁상형 공기정정기, 톤앤톤 네일홈입기, 블렌디아 화장품 등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만날 수 있다.

한편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는

'기본에서 시작하는 혁명(from the Basics to the Revolution)'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도 열린다. 디자인 불변의 요소인 '디자인 기본'에서부터 'Homo ex Data' (빅데이터 시대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한 통찰력 제공의 장을 마련한다.

국제적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디자인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다. 피터 제 레드닷 회장을 비롯해 카림 하비브 기아글로벌 디자인담당 전무, 윤승호 엔씨소프트 사장, 이혜선 코웨이 대표이사, 다나카카즈오 GK대표가 연사로 자리를 빛낸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안전한 행사를 위해 코로나19 방역에도 힘을 쏟고 있다.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에는 전체 방역을 실시하고, 전시관 입구마다 자동소독게이트와 체온측정기, QR코드 등을 설치해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방역 전담요원을 상시 배치해 시설물 소독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전시 해설 서비스의 어려움을 모바일 전시해설 서비스인 '큐피커'로 해소한다.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전시해설 제공 서비스다.

전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연수 기자

www.aroma-life.co.kr

Aroma Life
가능성 속옷의 명가 | (주)아로마라이프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속옷장수기업

가능성 속옷의 명가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5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5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슈에프

블랙은사 바디 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런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1. 한국을 비롯한 세계 4개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2.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3.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 효과

광주본사 | 총판·대리점 문의: 1588-2219 | 명품관(사척문의): 070-4909-0060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 총판·대리점 문의: 02-882-4569 | 명품관(사척문의): 070-7726-110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촉박빌딩